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사용된
관사의 특징과 학생들의 관사
사용 오류에 관한 연구



2010년 8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문 지 영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사용된
관사의 특징과 학생들의 관사
사용오류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박 양 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8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문 지 영

문지영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0년 8월



주 심 문 학 박 사 권 영 희 (인)

위 원 언 어 학 박 사 John Stonham (인)

위 원 문 학 박 사 박 양 근 (인)

목 차

영 문 초 록	iv
제 1장 서 론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2 연구 내용	3
1.3 연구 방법	3
제 2장 이론적 배경	6
2.1 관사 이론	6
2.1.1 한정성 이론	6
2.1.2 총칭성 이론	13
2.2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주요 용법	17
제 3장 영어교과서에 나타난 관사 이해 및 활용 실태	20
3.1 관사 이해 및 활용	20
3.1.1 교과서에 제시된 관사 사용 빈도	20
3.1.2 정관사 사용 분석	21
3.1.3 부정관사 사용 분석	31
3.2 실험 및 분석결과	36
3.2.1 실험 대상 및 방법	37

3.2.2 실험 결과	38
3.3 관사의 효과적인 지도 방안	55
제 4장 결론 및 제언	58
참고문헌	60
설문지	62



표 목차

< 표 1 > 관사 사용 빈도	21
< 표 2 > 본 논문의 교과서에서 사용된 정관사 용법분석	22
< 표2-1> 선행연구의 교과서에서 사용된 정관사 용법분석	23
< 표 3 > 본 논문의 교과서에서 사용된 부정관사의 사용분석	31
< 표3-1> 선행연구의 교과서에서 사용된 부정관사 용법분석	32
< 표 4 > 문항별 정답률과 오답률	38
< 표 5 > 정관사의 용법에 따른 정답률과 오답률	54
< 표 6 > 부정관사의 용법에 따른 정답률과 오답률	55

A Study of English Articles in a Textbook
and High School Students' Misuse
of English Articles

Ji Young Mo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national curriculum of English focuses more on communicative competence than on grammar. For this reason, in spite of their high frequency and importance, articles are rarely instructed in the class. In fact the minute misuse of articles can hamper effective communication. Korean students have difficulties in using articles, which the Korean language do not have. For better English communication, English teachers have to teach articles to students. Thus, I analyze some of the previous theories on the functions of English articles and then how the varied functions of them are reflected in a textbook for 1st-grade high-school students. With this survey, I tested how correctly 100 highschool students used the articles.

The result is that some of the basic functions were frequently used on the textbook such as the indefinite articles that indicate 'one' or what is newly introduced, and the definite articles that refer to the above-mentioned noun, or to the only existence. The same result appeared in the questionnaire test. These consequences show that some of the students have little knowledge of articles and the others only know the basic functions of them. Though there were many clues to find a proper article in the context of the sentences, only 30% of the students could catch the

right answer.

I suggest that the varied functions of the articles should be considered in textbooks and teachers should help students familiarize themselves with the complex workings and meanings of the English articles.



제 1장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 기술의 발달로 온 세계는 하나의 땅을 구축하게 되었고, 그 땅을 통해 국가 간에 빠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제사회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영어가 세계의 공용어가 되었고, 현대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영어 교육에 열의를 내고 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 따라 영어습득은 생존과 연관될 정도가 되었고, 학교현장에서는 영어 교수학습에 몰두하게 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행된 외국어과 교육과정 I (2009)에 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목표가 제시된다.

첫째, 평생학습자로서 영어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와 자신감을 얻는 바탕을 마련한다.

둘째, 일상생활과 일반적인 화제에 관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른다.

셋째, 외국의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다.

넷째, 외국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기른다.

이와 같이 영어교육이 예전과는 달리 의사소통에 더욱 초점을 두게 되었고 문법 교수의 시간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게 되었다. 따라서 영어 습득이 대부분 학교수업을 통해 이뤄지는 우리나라의 실정 상, 학습자의 문법능력이 예전보다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또한 관사가 영어에는 있지만 우리나라 말에는 없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정확한 사용이 어렵다. 다음은 Whitman(1974)의 관사 습득에 관한 언급이다.

The articles in English have always been considered one of the most formidable problems to overcome in teaching English grammar to foreigners, and its misuse is one of the most evident grammatical signs that a person is not a native speaker.

이와 같이 관사의 부정확한 사용은 영어의 의사소통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관사의 사용은 고급 수준의 학습자에게도 어려운 영역이기에 원활한 의사소통의 목표달성을 위해 관사에 대한 교수학습이 세심하게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 1학년 영어 교과서를 통해 관사의 사용범위와 학습자들의 사용실태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고등학교 수업에서는 교과서의 본문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본문 안에서 사용된 관사의 범위와 빈도를 연구하고자 하고 그에 따른 학습자들의 관사 사용 능력은

어떠한지 단답형 설문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사들에게 관사의 효율적 교수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범위를 제한한다.

첫째, 먼저 관사의 일반적인 특성과 이론을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 읽기 지문에서 관사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범위와 빈도를 분석한다. 왜냐하면 영어 수업의 대부분은 읽기 지문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둘째, 교과서 분석이 끝나면 1학년 학생들의 관사 활용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형식의 테스트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한다. 이 테스트의 목적은 학생들의 관사활용에 대한 것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셋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사들에게 관사의 효율적인 지도방안을 제시한다.

1.3 연구 방법

먼저는 교과서에서 어떤 관사들이 얼마나 자주, 또 어떤 용법으로 사용되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대상과 범위 및 기준을 정했다. 그 후에 실험 대상자들을 선정하여 관사의 활용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1.3.1 분석 대상

2010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는 고등학교 공통 영어 교과서 12종 중 1종인 이찬승 외 5인이 개정 7차 교육과정에 따라 2008년에 능률교육에서 출판한 책으로 분석했다.

1.3.2 분석 범위 및 기준

관사는 한국어에는 없는 독특한 품사이지만 영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품사이다. 외국어 학습자들에게 기능어인 관사가 내용어인 동사, 명사보다 중요성이 간과될 수 있지만, 관사의 사소한 오류가 의사소통에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렇기에 영어 학습자들은 관사학습에 의식적인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이 대부분 학교에서 이뤄지는데, 학교에서는 영어 교과서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한다. 그래서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12종 중 1종을 택해서 관사의 쓰임을 분석해본다. 선택된 교과서는 총 11과로 되어 있고 문법,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읽기지문을 택하여 관사를 분석하려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수업 때 주

로 읽기지문을 가지고 진행되기 때문이다.

관사에는 정관사와 부정관사가 있는데, 읽기지문에서 몇 번이나 쓰였고 어떠한 용법으로 쓰였는지 분석해본다. 먼저는 관사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관사이론과 관사 용법에 대해 알아본다. 이와 같이 교과서에 쓰인 관사에 대해 분석해보고 학습자들의 관사 사용 행태에 대해 설문지를 통해 분석한다. 설문지는 두 개의 관사 중 선택하는 것과 빈 칸에 관사 넣기 문제로 다른 도서에서 나오는 문제로 출제하였다. 이 설문지를 통해 학습자들이 관사를 얼마나 잘 인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며, 더 나은 관사지도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제 2장 이론적 배경

2.1 관사 이론

여기서는 관사의 대표적인 이론인 한정성과 총칭성 이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정성 이론은 Christophersen(1939), Jespersen(1965), 한학성(1996)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였고 총칭성 이론은 강행구(2001), Allan(1986), Hewson(1972)의 이론을 살펴보았다.

2.1.1 한정성 이론

영어 학습자들에게 정관사 the의 대표적인 속성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한정성을 꼽을 수 있다. 한정성이란 담화 상에서 화자가 어떤 대상을 끌어드린 후, the를 사용하여 표시함으로써 그 대상은 청자와 화자 간에 친숙한 것이 된다. 다음 예를 살펴보자.

- (1) Mr. Brown gave me *a bag* yesterday. *The bag* was the thing that I really wanted to buy.

여기서 화자는 a bag을 담화 속에 끌어들었고 청자가 그 가방을 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the bag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담화에서 대상을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 화자는 의사소통에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곧바로 대상을 한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지시대상이 암묵적으로 도입되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도입되는지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자.

Christophersen(1939: 50-51)은 the는 친숙성을 나타내고 a는 개체를 나타낸다는 관사이론을 펼쳤다. 친숙성의 인식은 명시적 문맥기초(explicit contextual basis), 함축적 문맥기초(implicit contextual basis), 상황적 문맥기초(situational contextual basis)를 통해 이뤄진다.

- ① 명시적 문맥기초: 화자는 대상을 도입하기 위해 먼저는 부정관사로 표시하고 다음의 서술에서 정관사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이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2) She poured *some water* in a kettle and put it on the fire; half a minute later *the water* was boiling.

위의 문장에서 화자는 some water를 도입하여 화자와 청자 간의 이해의 기초를 마련한 후 the water를 언급함으로써 한정지시를 나타내고 있다.

화자에 따라서는 처음에 대상을 한정한 후에 그 지시대상에 대한 이해의 기초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의 예가 바로 그것이다.

- (3) High above *the town*, on a short column, stood the statue of the Happy Prince.

(3)에서 the town이 갑자기 도입됨으로 청자는 놀랄 수 있다. 하지만 곧 바로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있는 곳’이라고 확인이 되자 이해의 기초 없이도 혼란을 피할 수 있다.

- ② 함축적 문맥기초: 어떤 대상이 먼저 언급되고 그 다음에 그와 연관되는 다른 대상들이 나열됨으로 처음으로 언급된 대상이 한정되는 경우이다.

(4) Jenny gave me a new sweater. *The buttons* are brown.

the buttons는 앞에서 언급된 sweater를 말하고 있으므로 한정시켜주고 있다.

다음의 문장도 함축적 문맥기초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5) There was *a leopard* around my tent. I was threatened by *the animal* all night.

위의 문장은 앞에서 언급한 대상을 다른 명사를 사용하여 다시 언급하는 것이다. leopard는 animal의 하위범주로 상위범주는 하위범주를 한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상황적 문맥기초: 대화가 이뤄지는 상황 속에서 화자와 청자 간에 지시대상이 특정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이며, 이 때 그 대상은 바로 정관사로 표현된다. 다음 예시를 살펴보자.

(6) Pass me *the ball*, please.

ball은 대화가 공놀이를 하는 운동장에서의 상황을 전제하므로 부정관사를 써서 그 전에 도입할 필요가 없다.

Jespersen(1965)은 대상의 친숙도를 세 가지로 언급하였다. 첫 번째는 전혀 친숙하지 않은 것으로 부정관사를 사용한다. 두 번째는 거의 완전한 친숙한 것으로 정관사를 사용한다. 다음의 예시를 보면 두 가지의 친숙도를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 (7) a. There came *a man* marching along the street.
- b. There lived *a man* in the town. *The man* was known as a singer in the town.
- c. The queen is dead. Long live *the queen*!

(7a)의 man은 부정관사를 사용함으로 전혀 친숙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며 어떤 부류의 개체를 나타낸다. (7b)의 man은 처음에 부정관사로 도입되었지만 뒤에 정관사를 사용함으로 명시적 문맥에서 언급되고 있다. (7c)의 queen은 거의 완전한 친숙의 단계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이미 의식 속에 존재하는 경우로 the를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친숙의 단계로, 이때는 관사를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두 번째의 거의 완전한 친숙의 단계보다 더 친숙하기에 관사를 쓰지 않는다. Jespersen은 이 단계에서 쓰이는 항목들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다.

- (8) a. direct address(vocative)
- b. proper names
- c. God
- d. father, uncle, baby, nurse and other members of the family

circle

e. dinner and other regular meals

f. church, prison, town, etc

그러나 위의 항목들도 문맥에 따라 때로는 관사와 함께 사용될 수도 있다.

한학성(1996)은 명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 외의 요인, 즉 문맥, 담화 상황, 사물의 유일성, 수식어에 의해 한정성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① 문맥

- (9) a. I saw *a girl*, and *the girl* danced in the street.
b. It takes more calories to eat *a piece of celery* than the celery has in it. Therefore *the vegetable* is included in most weight-loss diets.
c. When she tried to open *her front door*, she couldn't get *the key* in the lock.

(9a)는 앞에서 girl이 도입되고 뒤에서 정관사로 받게 되는 명시적 문맥 기초를 나타낸다. (9b)에서는 the vegetable이 앞에 있는 다른 명사 a piece of celery를 지시하고 (9c)는 her front door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the key를 사용하는 함축적 문맥기초를 따르고 있다.

- ② 담화 상황: 화자와 청자 간 공유되는 지식에 의해 지시내용이 결정되는 개인적 차원과 화자와 청자를 넘어 국가나 사회 구성원들 모두에

게 공유되어 지시내용이 결정되는 사회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다시 눈에 보이는 사물과 보이지 않는 사물을 지시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10) a. Open *the window*, please.

b. When *the policeman* had gone, I remembered that I didn't tell him about the damaged window.

c. *The prime minister* is visiting Korea now.

(10a)는 대화가 일어나는 장소에서 화자와 청자의 시각 속에 있는 window를 지시한다. (10b)의 경우에는 발화하는 시점에서 policeman은 이미 가고 없지만 화자와 청자의 기억에 policeman이 있기 때문에 한정할 수 있다. (10)의 a, b는 개인적 차원에서 공유되는 상황이지만 c의 경우는 prime minister가 한 국가에 한 명 뿐이니 화자와 청자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지식임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한정되는 경우이다.

- ③ 사물의 유일성: 명사가 지시하는 대상이 유일한 것 자체가 한정시키는 데 정관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Jespersen은 인간의 사고 속에서 현실적으로 유일한 사물이지만 더 많은 개체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11) a. Look at *the moon* in the sky.

b. There'll be *a new moon* tonight.

(12) a. Let's try to make *the earth* clean.

b. Imagine *a polluted earth* for our children.

(11a)는 지구상에 달은 하나뿐임으로 한정시킬 수 있고 (11b)의 경우는 달은 유일하지만 모양에 따라 달리 표현될 수 있기에 비한정지시로 나타낼 수 있다. (12a)에서 지구는 하나뿐임으로 한정할 수 있고 (12b)는 지구의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한정지시를 나타낸다. 이렇게 세상에 서 유일한 개념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사고에서 많은 개체를 전제함에 따라 달리 표현되는 것처럼 언어와 인간의 사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 ④ 수식어: 지시하고자 하는 대상이 수식어에 의해 유일성을 만족시키면 정관사를 사용하고 그렇지 못하면 부정관사나 무관사를 사용하게 된다. 먼저 형용사에 의해 수식되는 명사를 살펴보자.

(13) a. Mary was *the first child* who came to church.

b. Mary is *a first child*.

(13a)에서 Mary는 '교회에 처음으로 온 아이'라는 수식어로 인해 유일성을 만족시키므로 정관사가 붙게 되었고 (13b)에서는 '장녀들' 중 한 명에 속하는 것으로 유일하지 않기에 부정관사가 붙게 되었다.

다음은 of-phrase 수식어에 의해 한정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14) a. Look at *the bottom* of page 12.

b. He is *a man* of great wisdom.

(14a)에서 bottom은 of-phrase의 수식을 받아 유일성을 만족시키기에 한정지시를 나타내고 (14b)에서 man은 수식을 받지만 현명한 남성들 중 한명이기에 유일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비한정지시를 나타낸다.

수식어에 의한 한정성을 정리해본다면, 명사가 수식어에 의해 수식받는다 고 해도 유일한 성격을 갖지 못하면 비한정지시를 나타내게 된다.

2.1.2 총칭성 이론

총칭성이란 명사구가 부류 전체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총칭을 나타내는 명사구는 가산성과 한정성을 나타내는 명사구와 형태상으로 다르지 않다. 또한 통사적 구분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총칭해석을 가진 명사구는 어떤 것이 필요로 할까?

강행구(2001)는 술어가 부류의 속성이나 일반적인 경향을 나타내면 지시대상이 총칭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일시적인 상태를 나타낸다면 총칭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15) a. Dogs are *faithful*.

b. Dogs are *barking*.

(15a)에서는 개의 일반적인 성질을 나타내므로 총칭의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b에서는 일시적 상태를 나타내므로 비총칭이 된다.

다음은 술어의 일부로 사용된 명사구가 총칭과 비총칭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16) a. The girls like *strawberries*.

b. The girls have *strawberries*.

(16a)에서 딸기는 일반적인 딸기 전체를 나타내는 총칭으로 사용되고 있고 (16b)에서 딸기는 부류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해 나타내므로 비총칭이 된다.

형태가 다르면 의미도 다르다는 언어학적 관점에 따라 관사별로 나누어 총칭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1.2.1 부정관사와 총칭성

부정관사가 총칭을 나타내는 방법은 집단 전체에서 한 개체를 선택하여 대표성을 띠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부정관사가 의미하는 ‘하나’라는 수의 개념은 줄어든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17) *A tiger* has four legs.

(17)에서 *a tiger*는 한 개체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집단 전체를 대표하는 총칭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Allan(1986)은 ‘총칭을 나타내는 부정관사는 부류의 전형적인 개체를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다음의 예시는 그가 언급한 것이다.

(18) a. *A dog* is a quadruped.

b. *A student's* essay should be marked with great care.

(18)에서 a dog와 a student는 하나의 특정한 개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개체를 나타낸다.

Allan의 주장과 함께 다음의 예를 보면,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19) a. *A woman* is shorter than a man.

b. *A German* is a good musician.

(19a)의 a woman과 a man이 특정한 여자와 남자를 가리킨다면, 예외가 너무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여자와 남자의 키를 비교해 봤을 때, ‘여자가 남자보다 더 작다’라는 것은 성립될 수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예외는 많겠지만 무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b)의 경우에는 비문이라는 의미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 비록 독일 전체 인구의 10% 정도가 훌륭한 음악가라고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 역사적으로 유명한 음악가가 독일에서 배출되었기에 이 문장은 얼마든지 수용될 수 있다.

2.1.2.2 정관사와 총칭성

이때까지 부정관사의 총칭적 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정관사의 총칭적 용법은 왜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던질 수 있다. 형태가 다르면 의미도 다를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부정관사와 정관사의 총칭은 서로 구별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Hewson(1972)은 정관사 the가 단일 대상을 나타내는 기능에서 추상화의 기능으로 변했음을 주장했다.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예문을 살펴보자.

- (20) a. *A chair* is a useful piece of furniture.
b. *A chair* is in the living room.
c. *The chair* is a useful piece of furniture.
d. *The chair* is in the living room.

(20a)의 *a chair*와 (20c)의 *the chair*를 비교했을 때, 부정관사와 정관사가 모두 총칭으로 사용되었지만 전자는 구체적이고 후자는 추상적 의미가 있으므로 정관사의 총칭이 완전한 총칭이다.

그는 *a chair*가 다른 종류의 것들도 존재함을 전제로 하지만, *the chair*는 다른 부류의 가구들과 대조를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정관사의 추상화 기능은 정관사 + 복수형 명사의 총칭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여기서의 총칭용법은 정관사의 기본기능이 추상화 작용이므로 구성원들 전체를 단순히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함침으로써 나타나는 추상개념을 가리킨다. 그의 예를 살펴보자.

- (21) a. *Babies* are crying.
b. *The babies* are crying.
c. *Germans* are good musicians.
d. *The Germans* are good musicians.

(21b)에서 아기들을 추상화한다고 해도 그 속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총칭의 의미를 떨 수 없다. 그러나 (21d)의 *the Germans*는 국가 구성원들 개개인을 뛰어넘어 ‘국민’이라는 추상개념이 형성되기 때문에 총칭성을 띤다. 이외에도 정관사 + 복수형명사는 학술적 기술 등의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분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2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주요 용법

여기서는 관사의 용법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 관사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로 정관사 'the', 부정관사 'a/an' 그리고 무관사(zero article)가 있다. 특히 여기서는 부정관사와 정관사에 대한 용법의 실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2.1 정관사의 용법

정관사는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와 함께 쓰일 수 있으며, 화자와 청자 또는 저자와 독자에게 알려진 명사를 표시하는데 쓰인다(박근우 1991).

- ① 모든 사람에 있어서 유일한 것: the moon, the earth, the sun
- ② 주어진 환경에 있어서 유일한 것: (만일 교실 안에서라면) the blackboard, the ceiling, the floor
- ③ 주어진 사회 집단에 있어서 유일한 것: the President
- ④ 손이나 고갯짓으로 보여 주는 유일한 것
- ⑤ 주의를 끄는 특징을 가진 유일한 것: the explosion, the streaker

- ⑥ 추정에 의한 유일한 것: (어떤 집을 화제로 삼을 때) the window, the garden
- ⑦ 수식어구에 의해 한정되는 유일한 것: the house with a view, the girl who speaks Basque
- ⑧ 앞에서 언급됨으로써 지정되어 유일한 것: I saw a funny-looking dog today. The dog ...
- ⑨ 한 집합체 속에서의 특정한 순서나 서열에 의한 유일한 것: the last sentence on the page; the fastest runner in the heat
- ⑩ 뒤에 언급하리라고 예상함으로써 지정되는 유일한 것: We found the hubcap of a car that must be very expensive.

2.2.2 부정관사의 용법

부정관사는 원래 ‘하나’라는 뜻을 가진 수사에서 시작되었는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부정관사의 본래 뜻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뜻을 알아야 한다. 부정관사의 일반적인 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김용성 2001).

- ① 화자에 있어서는 특정한 것이지만, 청자에게는 특정하지 않는 것을 처음으로 화제로 삼을 때: I saw a funny-looking dog today.

②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특정하지 않는 것을 화제로 삼을 때: I need a new belt.

③ 화자에게는 특별한 것이 아니지만, 화자가 생각했을 때 청자에게는 특별하다고 생각될 때:

FBI(미국연방수사국) 수사관이 어떤 집 주인에게: Don't be coy. We know there's a spy hiding in your cellar.

Barbara Walters(TV 사회자)가 사다트 대통령에게: I understand you've made a proposal to the Israelites concerning the West Bank.



제 3장 영어교과서에 나타난 관사 이해 및 활용 실태

3.1 관사 이해 및 활용

위에서 언급한 관사의 이론과 용법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 채택한 영어 교과서에서 정관사와 부정관사가 얼마나 자주 쓰이며, 어떤 용법으로 사용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선행 연구된 권명애(2002)의 논문에서 조사된 관사들의 빈도와 비교 분석해본다. 이 때 유념해야 할 부분은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본문을 다루었고, 권명애에 따르면 교과서 말하기 부분을 연구했다는 것이다.

3.1.1 교과서에 제시된 관사 사용 빈도

<표1>은 이 연구에서 채택된 영어 교과서(이찬승외 2008) 총11과의 본문에서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사용 빈도를 조사한 것이다. 표의 오른쪽에 보면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총 빈도수를 볼 수 있는데, <표1>에서 정관사가 부정관사보다 더 빈번히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관사의 이론과 용법을 토대로 선택된 영어교과서 1종의 독해 지문에

서 정관사와 부정관사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연구할 것이다. 문법시간에 관사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겠지만 문법이론만 안다고 해도 실제 사용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영어교과서의 관사의 사용과 함께 영어 학습자들의 관사 활용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앞에서 언급했던 관사 사용 빈도에 대한 표이다.

< 표1 관사 사용 빈도 >

구 분	1과	2과	3과	4과	5과	6과	7과	8과	9과	10과	11과	합계
정 관 사	21	19	37	17	9	46	23	49	20	23	51	315
부정관사	21	19	28	12	15	13	29	14	22	17	13	203

영어의 특성상 명사는 주로 관사와 함께 쓰이기 때문에, 관사의 사용 빈도가 높다. 이는 모국어에 관사체계가 없는 영어 학습자들이 관사에 대해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3.1.2 정관사 사용 분석

본 논문에서 채택된 교과서와 권명애의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정관사의 용법 분석을 비교해 보자. 이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은 앞에서 언급했던 관사이론과 용법을 바탕으로 하였다. <표2>는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이며, <표2-1>은 권명애의 선행연구 결과이다. 이 선행연구는 2001년 출판된 제 7차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4권의 교과서로 연구되었으며, 그 종류는 천재교육(이병민외 4인), 금성출판사(김덕기외 9인), 한국교육미디어(이홍수의

5인), 능률영어사(이찬승외 4인)에서 출판된 1학년 영어교과서이다.

< 표2 본 논문의 교과서에서 사용된 정관사 용법분석 >

정관사 'the'의 용법	사용횟수(빈도)
1. 앞에 나온 명사 지칭	49(15.5%)
2. 한정적인 수식 어구로 사용	92(29.2%)
3. 시간 수량의 단위를 나타냄	10(3.1%)
4. 종족 대표	3(0.9%)
5. 최상급, 서수 수식	39(12.3%)
6. 기계, 발명품, 악기 앞에 수식	2(0.6%)
7. 처음 언급되는 명사 앞에 쓰는 경우	27(8.5%)
8. 신체 일부를 나타냄	3(0.9%)
9. 세상의 유일물	68(21.5%)
10. 관용 어구로 쓰임	18(5.7%)
11. 공공 장소 앞에	3(0.9%)
12. 기타	1(0.3%)
합계	315(100%)

< 표2-1 선행연구의 교과서에서 사용된 정관사 용법분석 >

정관사 'the'의 용법	A 교과서	B 교과서	C 교과서	D 교과서	합계 빈도(%)
1. 앞에 나온 명사 지칭	9 (16.07)	17 (22.08)	8 (11.11)	21 (22.34)	55(18.39)
2. 한정적인 수식 어구로 사용	9 (16.07)	18 (23.38)	17 (23.61)	11 (11.70)	55(18.39)
3. 시간 수량의 단위를 나타냄	•	•	1(1.39)	5(5.32)	6(2.00)
4. 종족 대표	•	•	•	2(2.13)	2(0.67)
5. 최상급, 서수 수식	5(8.9)	10 (12.99)	7(9.72)	8(8.51)	30(10.03)
6. 기계, 발명품, 약기 앞에 수식	8 (14.29)	6(7.79)	7(9.72)	6(6.38)	27(9.03)
7. 처음 언급되는 명사 앞에 쓰는 경우	4(7.14)	14 (18.18)	10(7.2)	10 (10.64)	38(12.71)
8. 신체 일부를 나타냄	•	•	•	•	•
9. 세상의 유일물	3(5.36)	3(3.89)	6(8.33)	9(9.57)	21(7.02)
10. 관용 어구로 쓰임	8 (14.29)	4(5.19)	7(9.72)	7(7.44)	26(8.69)
11. 공공 장소 앞에	9 (16.07)	5(6.49)	5(6.94)	13 (13.83)	32(10.70)
12. 기타	1(1.79)	•	4(5.56)	2(2.13)	7(2.34)
합계 빈도(%)	56 (100)	77 (100)	72 (100)	94 (100)	299(100)

<표2>와 <표2-1>에서 분석된 결과를 비교해보면,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정관사의 용법은 1, 2번이고, 거의 사용되지 않는 용법은 3, 4, 8번 용법이다. 특히 8번 용법은 A, B, C, D 교과서에서 빈도수를 보이지 않았다. 1, 2번은 정관사의 가장 기본적인 용법으로 실제 영어 사용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9번 용법은 <표2>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빈도수

를 보였지만 A, B, C 교과서에서는 하위를, D 교과서에서는 중위의 빈도수를 보였다. 문맥에 따라 정관사가 사용되는 7번 용법은 연구된 모든 교과서에서 중상위의 빈도를 보였으며, 11번 용법은 <표2>와 B, C 교과서에서는 하위의 빈도를 보였지만 A, D 교과서에서는 상위의 빈도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교적 자주 사용되는 정관사와 거의 쓰이지 않는 정관사의 용법은 모든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일치하는데, 그 외의 용법은 빈도수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여기서는 <표2>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정관사 용법들이 우리나라 영어교과서에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 분석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용법에 대해서도 살펴봄으로써 정관사의 특정한 표현의 결손이 영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것이다.

3.1.2.1 교과서에 제시된 정관사 사용 분석 실태

비록 이 연구가 교과서의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중에서도 읽기 부분에 대한 것이었지만, 정관사의 사용 빈도는 높은 편이었다. 다음은 분석 결과를 정리해본 것이다.

첫째, <표2>의 12가지 정관사 용법 중에 가장 큰 비율을 보인 것이 29.2%를 차지한 수식어구로 사용된 경우이다. 교과서 분석을 하기 전에는 ‘앞에 나온 명사 지칭’의 용법이 가장 잦은 빈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과 달리 3위를 차지했다. 그래도 한정용법은 학생들에게 친숙한 정관사의 사용으로 교과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자.

(22) Did you notice that *the sentence* you just read had some misspellings? (1과)

*the sentence*는 바로 뒤에 오는 *you just read*의 관계사절에 의해 수식을 받아 한정된 문장이기에 정관사를 사용하게 된다. 이때, 선행사와 관계사절 사이에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기에 학생들이 관계대명사의 생략을 함께 이해해야 할 것이다.

앞의 용법처럼 눈에 띄게 구별할 수 있는 용법이 21.5%를 차지한 ‘세상의 유일물’을 나타낼 때의 정관사 용법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23) It can also act as a symbol of hope and support that makes them feel *the world* has not forgotten them. (2과)

*world*는 인간의 사고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the sun, the earth, the moon*처럼 관용적으로 정관사와 함께 쓴다.

둘째,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된 용법은 15.5%를 차지한 것으로, 앞에 나온 명사를 지칭할 때 정관사를 사용한다. 이 용법은 정관사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용법으로 중학교 문법시간에 기본적으로 다루어진다. 개체를 처음 소개할 때는 부정관사를 사용하고 이후부터는 정관사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에서는 이 용법이 3위를 차지한 것을 볼 때,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관사의 기초적인 용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법을 다루기 위해 노력한 모습이 보인다.

(24) Today we're going to take *a quiz* about some of these healthy

foods. Read the five clues that are given in each round of *the quiz*. (6과)

앞 문장에서 먼저 quiz를 도입한 후에 둘째 문장에서는 정관사를 사용함으로써 친숙함을 나타낸다.

셋째, 위의 용법과 같이 정관사의 기본 용법이 되는 것이 12.3%를 차지한 ‘최상급, 서수 수식’이다. 이는 관사를 배울 때뿐 아니라 형용사의 최상급을 배울 때에도 정관사를 사용해야 함을 학습하기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다음의 예는 형용사의 최상급 표현 앞에 정관사를 붙이는 경우이다.

- (25) *The greatest moment* is when a refugee child grasps a ball we have sent and two hearts unite in an act of pure love. (2과)

넷째, 지금까지 논의한 정관사의 용법은 눈에 띄게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러나 8.5%를 차지한 정관사의 용법, ‘처음 언급되는 명사 앞에 쓰는 경우’는 청자와 화자 사이의 담화 상으로 정관사의 역할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교사는 정관사의 역할과 선택의 이유를 의미적인 측면에서 설명해야 학생들의 폭넓은 관사의 이해를 이끌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면서 알아보자.

- (26) When I first tried out for *the soccer team* at my high school, I wanted to be a striker. However, the team needed a

goalkeeper, and *the coach* chose me. (1과)

위의 부분은 본문에서 화자가 축구팀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부분이다. the soccer team은 뒤에 오는 수식어구 at my high school 때문에 정관사를 사용하게 되었지만, the coach의 경우는 본문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개념이다. 그러면 처음 도입되는 경우의 명사는 부정관사를 써야한다는 용법에 따르면 오류가 있겠지만, 담화 상으로 봤을 때 정관사를 바로 붙여도 된다. 왜냐하면,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화자는 고등학교 때의 축구팀에 대해 이야기를 전개했기 때문에 코치는 화자와 청자 간에 이미 그 축구팀의 소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다섯째, 정관사의 관용어구 용법이 5.7%를 차지했다. 특히 전치사구의 경우에 관용적으로 정관사를 사용할 때가 많았다. 다음의 예가 그 중 하나이다.

(27) In *the past*, the currencies of many European countries had pictures of famous authors, musicians, and artists. (3과)

정관사의 관용적인 표현은 보통 무조건 암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업시간에 교사는 학생들에게 왜 정관사를 사용해야하는지 설명을 해주면 학생들의 관사를 보는 눈이 더 넓어질 것이다.

여섯째, 시간 수량의 단위를 나타내는 정관사의 용법이 3.1%를 차지했는데, 영어교과서의 총11과 중에 10번의 빈도를 보였다. 즉, 평균 1과에 1번 씩은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다음의 예시가 그 중의 하나이다.

(28) Big windows mean lots of natural light and less need for electricity during *the day*. (11과)

마지막으로 나머지 5개의 용법은 1% 미만의 경우이다. 이것은 다음 예문과 같이 반드시 정관사를 써야 되는 용법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적었다는 것이고 이는 학교 수업에서 일부 관사 용법에 대한 학습의 결손을 의미한다. 어떤 결손이 생길 수 있는지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① 종족 대표(0.9%): 대부분 정관사의 총칭적 용법이 교과서에서는 많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종족 대표 용법이 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담화구문에서 오해 없는 의사소통을 위해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관사 총칭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음은 코끼리의 종족 대표를 표현하기 위해 *the elephant*라고 표현했다.

(29) *The elephant* is the largest land mammal. (10과)

② 신체 일부(0.9%): (30)의 예문처럼 신체 앞에 정관사를 사용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편이다. 그러나 (31)의 예문과 같이 신체 앞에 정관사가 오는지 여부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상세한 관사용법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없었다. (31)의 a와 b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자.

(30) My brother hit me on *the head*. (오자키 데쓰오 2007: 161)

(31) a. She looked me in *the eye*.

b. She looked in my eye. (정두영 1990: 40)

a와 b는 모두 ‘그녀가 나의 눈을 들여다 보았다’로 해석될 수 있지만, b는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의 눈을 검사할 때 가능한 문장이며 a는 어느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

③ 공공장소(0.9%): 공공시설 앞에 정관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미 중학교 문법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암기를 한다면 예외적인 경우에도 동일한 규칙을 사용함으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32) Sylvette was sitting with a few friends on *the terrace*. (7과)

(33) I went to Washington Square yesterday.

(34) How about going to Kyonbook Palace?

무조건 공공장소 앞에는 정관사를 붙여야 된다는 입장을 대입한다면, (33)과 (34)의 예문은 비문이 된다. 그래서 Celce-Murcia & Larsen-Freeman(1983)의 이론에서는 이런 경우 특정한 장소일 필요가 없이 우리가 항상 또는 습관적으로 가거나 들리는 곳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영어교과서에서는 공공장소 앞에 쓰이는 정관사 용법 중 상당수가 이런 의미의 정관사 용법이었다. 그러므로 정관사 사용의 이유를 가르칠 때, 화자와 청자 간의 담화에서 이러한 관사가 쓰일 수 있었던 이유와 화용적인 측면에서 지도해야 한다.

- ④ 기계, 발명품, 악기 앞(0.6%): 이 용법 역시 관사의 기본적인 용법으로 쉽게 습득 및 사용가능할 것이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35) I never see you doing anything but playing games and surfing *the Internet*. (5과)

인터넷은 현대의 최신 기술로 지구촌 전체를 하나로 만든 창조물이다. 그래서 정관사 the를 사용할 수 있다.

- ⑤ 기타(0.3%): 기타용법의 빈도는 낮았지만 교과서에 쓰인 두 가지 예시로 살펴보고자 한다.

(36) The key to living a healthier, happier life is to eat *the right foods*. (6과)

(37) Bentley, *the Snowflake Man* (9과)

(36)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the right foods를 섭취해야 함을 나타내는데, right foods가 지문에서 처음 나왔음에도 정관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앞으로 올바른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이다. 즉, 뒤에 이어질 글의 주제가 되기에 정관사를 사용할 수 있다. (37)은 글의 제목으로 앞으로 전개될 주제를 나타내기에 정관사를 사용할 수 있다. 기타의 용법은 교과서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수업시간에 잠깐이라도 설명을 해준다면,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막을 수 있다.

영어교과서에서 사용된 정관사용법을 분석해본 결과, 대부분 몇 가지 용

법에 크게 의존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물론 이 용법들이 정관사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지만, 좀 더 깊이 있는 정관사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해 나머지 용법의 빈도를 늘리는 것도 좋을 것이다. 특히 형태상으로만 봐도 알 수 있는 용법이 아닌 의미해석을 통해 화용론적인 입장에서 관사를 이해할 수 있는 예시들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3.1.3 부정관사 사용 분석

부정관사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one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셀 수 있는 단수명사 앞에 위치하는데,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어 앞에서는 ‘a’대신에 ‘an’을 사용한다. 영어교과서에서 부정관사의 사용에 대해 분석할 때 아래의 <표3>에 소개된 용법들을 토대로 했으며, <표 3-1>은 선행연구에서 나온 결과이다.

< 표3 본 논문의 교과서에서 사용된 부정관사의 사용분석 >

부정관사 ‘a’의 용법	빈도(%)
1. 하나 one	138(67.9)
2. 어떤 a certain	27(13.3)
3. 같은 the same	.
4. -마다(per)	.
5. 약간(some)	3(1.4)
6. 전체종족 대표	5(2.4)
7. 관용적인 표현	29(14.2)
8. 기타	1(0.4)

합계	203(100)
----	----------

< 표3-1 선행연구의 교과서에서 사용된 부정관사 용법분석 >

부정관사 'a'의 용법	A 교과서	B 교과서	C 교과서	D 교과서	합계 빈도(%)
1. 하나 one	33(45.8)	37(75.6)	44(55.0)	55(59.1)	169(54.5)
2. 어떤 a certain	16(22.2)	18(27.7)	12(15.0)	23(24.7)	69(22.3)
3. 같은 the same	•	•	•	1(1.07)	1(0.3)
4. -마다(per)	•	1(1.5)	3(3.2)	3(3.2)	8(2.6)
5. 약간(some)	5(6.9)	4(6.2)	1(1.25)	4(4.3)	14(4.5)
6. 전체종족 대표	4(5.5)	•	•	•	4(1.3)
7. 관용적인 표현	14(19.4)	4(6.2)	18(22.5)	7(7.5)	43(13.9)
8. 기타	•	1(1.5)	1(1.3)	•	2(0.6)
합계 빈도(%)	72(100)	65(100)	80(100)	93(100)	310(100)

<표3>과 <표3-1>을 비교해보면, 공통적으로 잦은 빈도를 보이는 용법은 1, 2, 7번이며, 거의 빈도를 보이지 않는 용법은 3, 6, 8번인데, <표3>과 A 교과서에서 6번의 용법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아주 소수이다. 반면에 4번 용법은 <표3>과 A 교과서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나머지 세 개의 교과서에서는 소수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정관사도 정관사처럼 가장 기본으로 사용되는 용법이 교과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정관사는 모든 용법이 한 번이라도 사용되었지만 부정관사의 경우에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용법이 있었으며 정관사의 경우보다 몇 개의 용법에 더 치우치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은 각 용법에 따라 부정관사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3.1.3.1 교과서에 제시된 부정관사 사용 분석 실태

분석 대상 교과서에서의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빈도수를 비교해보면, 정관사가 부정관사보다 약 100번 더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부정관사 사용 분석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관사의 용법이 정관사의 용법보다 적으면서 부정관사의 용법은 매우 편중되어 사용된다. <표3>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 ‘관용적인 표현’, ‘어떤’의 용법이 전체 비율의 95%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하나’와 ‘어떤’의 두 가지 용법은 중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배웠던 부정관사의 용법인데, 고등학교 교과서에서조차 이 두 가지 용법에 한해 부정관사가 사용된다면 학생들의 폭넓은 관사에 대한 이해로 발전되지 못할 것이다. 다음은 ‘하나’의 뜻을 가지는 부정관사의 사용의 한 예이다.

(38) I have *a person* who helps me with harder classes, such as math. (4과)

(38)에서는 a person 뒤에 관계대명사 절이 붙어서 수식을 하고 있기에 정관사를 사용해야 할 것 같지만, ‘한 명’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부정관사를 사용하였다. 이런 경우에는 부정관사의 쓰임에 대해 부연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의 예를 한 번 살펴보자.

(39) I think I'd better go have *a talk* with him. (5과)

(40) I'll have *a look* at it. (5과)

위의 문장에서 talk와 look은 셀 수 있는 명사가 아니지만, 부정관사와 함께 쓰이고 있다. 이 경우에는 화용론적인 입장에서 문맥상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39)와 (40)는 부정관사에 ‘한 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면 된다. (39)는 ‘그와 함께 대화를 한 번 나눠야겠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이고, (40)는 ‘그걸 한번 봐야겠다’라고 해석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둘째, 14.2%를 차지한 용법인 ‘관용적 표현’에 대해 살펴보자. 이 연구에서 ‘관용적’이라는 표현은 수업시간에 상세히 설명하는 것보다 원어민이 영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입으로 익히는 것이 좋은 표현들을 말한다. 다음의 예를 알아보자.

(41) Sylvette was sitting with *a few friends* on the terrace. (7과)

(41)에서 friends의 복수명사 앞에 a few가 함께 쓰였다. a few를 하나의 단위로 보지 않고 따로 인식을 한다면, 부정관사에 복수명사를 함께 쓰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a few를 한 단위로 인식하는 것이 관사를 이해하는데 더 효율적이다.

셋째, 세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용법은 ‘어떤’으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아래의 예시를 살펴보자.

(42) I was *a hot summer's day* in Vallauris, France. (7과)

(42)에서 말하는 a hot summer's day는 여름 기간 중에 어떤 한 날을 말하는 것이다.

넷째, 지금까지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인 용법 세 가지를 분석하였고, 다음은 나머지 다섯 용법에 관한 설명이다. 다섯 개 중 두 가지 용법, ‘-마다’, ‘같은’은 분석 대상의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없어서 이신행(1985), 권명애(2002)에서 예시 문장을 발췌했다. 다음을 살펴보자.

(43) We walked at the rate of ten miles *an hour*. (이신행 1985: 33)

(44) They are all songs of *a type*. (권명애 2002: 43)

(45)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권명애 2002: 43)

(43)에서 부정관사는 전치사의 역할을 겸하고 있어서 전치사 없이 단독으로 쓰였으며 ‘1시간에, 1시간마다’로 해석할 수 있다. (44)와 (45)의 예문에서 부정관사는 ‘같은’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영어교과서뿐 아니라 영어와 관련된 자료에서 찾기 힘든 표현이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교과서는 좀 더 다양한 용법과 예외적인 표현의 제시가 되어 학생들이 영어를 사용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 제작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에서 소수로 사용된 나머지 용법 세 가지는 빈도가 낮았기에 더 자주 교과서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절이 필요하다.

- ① 전체종족 대표(2.4%): 이 용법의 빈도가 낮았기에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 총칭과 비총칭의 의미 차이를 학생들이 간과할 수 있다.

(46) *A German* is a good musician. (총칭)

(47) I have *a German* friend. (비총칭)

② 약간(1.4%): 부정관사가 time, minute와 같은 단어 앞에 쓰인다.

(48) He stood there for *a time*. (오자키 데쓰오 2007: 145)

(49) Wait *a minute*.

③ 기타(0.4%): 기타 용법으로 단위 명사의 비단위화나 양성 개념 등의 부정관사 용법을 분류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50) A: What do you think of wine?

B: Generally speaking, wine is good for health.

Especially, I was impressed by *a wine* from France.

(이병민외 4인 2001: 92)

이와 같이 교과서에서 사용된 부정관사의 용법에 따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단위 명사 앞에 사용된 부정관사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관사의 기초적인 용법을 반복적으로 학습시킨다면 과잉 일반화를 초래할 수 있다.

다음은 교과서에서 사용된 관사 학습을 학습자들이 실제 의사소통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지 살펴본다.

3.2. 실험 및 분석결과

여기서는 실험 대상 학교 학생들이 정관사와 부정관사를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 설문지를 통해 분석했으며, 오답을 기재한 경우에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답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던 교과서에서의 관사 사용과 관련지어 학생들의 관사사용을 비교해보았다.

3.2.1. 실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실험 대상자는 부산에 소재하는 J여자 고등학교 1학년 3개 반을 대상으로 하였고, 1반 37명, 2반 37명, 10반 35명으로 총 109명이 참석하였는데, 무성의하게 응답한 9명은 결과 수치에서 제외시켰다. 결론적으로는 총 100명이 참석한 것과 같다.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실험 도구는 질문지 조사 방법으로 총 62문항으로 되어 있다. 질문지를 보면 관사에 대한 것인지를 알 수 있고 질문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2개의 선택 중에 1개를 택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괄호 안에 부정관사, 정관사, 무관사 중 알맞은 것을 기입하는 것이다.

질문지에 사용된 문장들은 Macmillan에서 출판된 *Advanced Language Practice with Key*(2003)에서 참조하였고 관사의 기본 지식뿐만이 아니라 문맥상으로 판단해야하는 문장들도 포함시켰는데, 이 논문의 관사 이론과 용법에서 소개된 관사들의 쓰임에 대해 묻는 문장들로 구성했다. 부정관사를 묻는 문항은 17개, 정관사를 묻는 문항은 28개, 무관사를 묻는 문항은 17개로 정관사를 질문하는 문항이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학생들의 응답 중에서 공란으로 비워 둔 경우는 모르거나 시간의 부족으로 판단하여 오답처리 하였고 관사이외의 단어를 적은 것은 관사라는 용어

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것으로 판단하여 함께 오답처리를 하였다. 또한 부정관사 a의 자리에 an을 기입한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는 정답으로 인정하였다.

3.2.2 실험 결과

전체적으로 실험 결과를 분석해 보면, 총 62문항 중에 정답률은 54%, 오답률은 46%였다. 정답률은 절반을 조금 넘었고 오답률은 정답률보다 8% 낮은 수치를 보였다. 다음은 문항별로 정답률과 오답률을 나타낸 표이다. 표에 대한 설명을 더 하자면, 기타항목에는 무응답을 포함해서 관사가 아닌 다른 품사를 기재한 경우이다.

< 표4 문항별 정답률과 오답률 >

문항	정답	정답률 (%)	오답률 (%)	부정 관사	정관사	무관사	기타	합계
1	a	79	21	79		19	2	100
2	a	42	58	42		55	3	100
3	the	76	24		76	22	2	100
4	무관사	18	82		79	18	3	100
5	an	62	38	62	33		5	100
6	The	71	29		71	27	2	100
7	the	62	38		62	35	3	100
8	the	65	35	33	65		2	100
9	the	67	33	30	67		3	100
10	the	60	40	39	60		1	100
11	무관사	67	33		30	67	3	100
12	The	86	14		86	12	2	100
13	the	56	44		56	43	1	100

14	the	39	61	59	39		2	100
15	the	82	18		82	17	1	100
16	an	72	28	72	24		4	100
17	a	56	44	56		42	2	100
18	무관사	58	42		39	58	3	100
19	The	83	17		83	15	2	100
20	무관사	50	50	46		50	4	100
21	a	57	43	57	39		4	100
22	The	68	32		68	31	1	100
23	무관사	31	69		68	31	1	100
24	무관사	37	63		62	37	1	100
평균 (%)		60	40					100
25	the	34	66	39	34	26	1	100
26	a	25	75	25	40	34	1	100
27	a	46	54	46	22	31	1	100
28	a	88	12	88	3	7	2	100
29	The	35	65	35	35	28	2	100
30	무관사	44	56	16	39	44	1	100
31	무관사	15	85	62	20	15	3	100
32	무관사	63	37	19	16	63	2	100
33	a	30	70	30	32	36	2	100
34	무관사	57	43	26	15	57	2	100
35	the	79	21	6	79	12	3	100
36	The	76	24	10	76	13	1	100
37	the	58	42	8	58	33	1	100
38	the	80	20	6	80	11	3	100
39	the	59	41	20	59	20	1	100
40	the	45	55	18	45	36	1	100
41	a	22	78	22	30	47	1	100
42	the	54	46	13	54	30	3	100
43	the	59	41	11	59	29	1	100
44	무관사	48	52	29	19	48	4	100

45	무관사	30	70	30	38	30	2	100
46	The	30	70	4	30	64	2	100
47	a	44	56	44	22	30	4	100
48	무관사	44	56	21	32	44	3	100
49	a	66	34	66	10	22	2	100
50	the	56	44	9	56	33	2	100
51	무관사	31	69	14	53	31	2	100
52	a	27	73	27	13	57	3	100
53	a	50	50	50	16	31	3	100
54	a	51	49	51	14	32	3	100
55	무관사	24	76	50	22	24	4	100
56	무관사	49	51	26	23	49	2	100
57	the	44	56	18	44	35	3	100
58	the	61	39	17	61	19	3	100
59	a	53	47	53	4	41	2	100
60	the	69	31	13	69	16	2	100
61	the	10	90	65	10	23	2	100
62	the	56	44	24	56	18	2	100
평균 (%)		48	52					100
총 평균 (%)		54	46					100

위의 표에서 보듯이,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이는 문항은 88%를 차지한 28번 문항이다. 이와는 반대로 가장 높은 오답률을 보이는 문항은 90%를 기록한 61번 문항이다. 다음은 28번과 61번의 문항이 포함된 문장들이다.

(51) When I left (25) station, I had to stand in (26) queue
for (27) taxi for (28) long time.

(52) Could you give me (61) information I asked for in (62)
letter I sent you?

28번의 문항의 정답은 부정관사 a 인데, 100명 중에 88명이 정답을 맞혔다. 다른 문항보다 정답률이 높은 것은 for a long time을 한 단위로 외워서 인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61번 문항에서는 정답이 정관사 'the'인데, 100명 중 10명이 정답을 맞혔다. 오답 중에 65명이 부정관사 an으로 답했는데, 그 이유는 학생들의 머릿속에 information을 가산명사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질문지의 문항별로 자세하게 분석한 것이다.

(53) It's 1) *a/-* long time since I met 2) *a/-* lovely person like you!

(54) At 3) *the/-* present moment, 4) *the/-* man seems to have 5)
the/an uncertain future.

(53)의 1)에서 부정관사를 정답으로 한 학생들은 평소에 a long time을 관용적으로 써왔기에 평균보다 훨씬 높은 정답률을 보였고, 그 외 무관사로 답했던 학생들은 time이 불가산명사로만 쓰이는 줄 알고 답했을 가능성이 많다. 2)에서 무관사를 정답으로 체크한 학생들이 의외로 많은 것은 person을 수식하는 형용사 lovely가 붙음으로 관사와 명사 사이에 거리가 생김으로 학생들이 간과하고 넘어간 것 같다. (54)의 1)에서 at the present moment는 관용어구로 학생들에게 친숙하여 76%의 정답률을 보였지만 오

답을 체크한 학생들은 time은 셀 수 없는 명사라는 관사의 기초지식에만 의존한 것 같다. 2)의 정답률은 거의 최저수준을 기록하는데, 그 이유는 man은 남자, 사람으로 해석되는 가산명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지에 부정관사가 없으니 정관사를 정답으로 체크한 것 같다. 그러나 man이 인류 전체를 나타낼 때에는 관사 없이 사용할 수 있다. 3)의 정답은 2)의 정답과 연관이 되는데, man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나타냄으로 future또한 정관사를 사용하여 특정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부정관사를 사용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는 각각의 미래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다음의 문장들은 정관사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의 정도를 알아볼 수 있다. 한 문장씩 살펴보자.

(55) 6) *The/-* French enjoy spending holidays in 7) *the/-* countryside.

(56) Please do not turn on 8) *a/the* water-heater in 9) *a/the* bathroom.

(57) Sue bought 10) *a/the* Picasso I was telling you about 11) *the/-* last week.

(58) 12) *The/-* poorest people in 13) *the/-* country live in this city.

(59) Have you seen 14) *a/the* new 'Hamlet' at 15) *the/-* National Theater?

(55)의 6)에서 71명의 학생들이 정답인 정관사에 표기를 하였는데, 형용사 앞에 정관사를 붙이면 그 형용사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즉 the French는 프랑스 국민 전체를 의미하는데, 오답인 무관사에 표기한 학생들은 국가가 고유명사로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다. 7)에서 정관사가 답이 되는 이유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닌 프랑스인들만이 휴일을 보내는 시골이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56)의 8)과 9)는 모두 정관사 the가 정답인데, water-heater와 bathroom은 부정관사와 정관사 모두가 앞에 올 수 있는 단어들이지만, 이 문제의 경우는 문장의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화자는 청자도 알고 있는 장소와 기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미 알고 있는 명사에 대해서는 정관사를 붙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인 부정관사에 답한 학생들은 문맥 속에서 관사를 쓸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57)의 10)에서 Picasso는 인명이지만 정관사를 붙임으로써 Picasso의 작품을 가리킨다. 11)에서는 the last와 last의 의미상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last에 정관사를 붙이면 ‘최후의, 맨 마지막의’ 의미를 가지며, 단독으로 쓰일 때는 ‘지난’의 의미를 가지게 되어 문장의 의미상으로 last week이 옳은 형태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의 역할을 한다.

(58)의 12)번 문항은 86%의 정답률을 기록할 정도로 학생들에게 쉬운 문제이다. 형용사의 최상급 앞에는 항상 정관사가 온다는 것은 중학교 때 배우는 관사의 기초 용법이다. 13)의 country는 ‘나라’의 의미를 가지는 가산명사이기에 관사를 사용하거나 무관사의 복수형 형태로 써야 한다. 그러므로 이 문장에서는 정관사를 써야 하며, 어느 특정한 나라의 국민층을 나타냄으로 정관사를 더더욱 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항의 정답률은 56%로 의외로 낮은 수치를 보이는데, 명사에 관사를 쓰는 습관형성이 학생들에게 더 필요한 것 같다.

(59)의 14)번은 연극이나 영화 제목 앞에 정관사를 붙이는데, 정답률이 39%로 아주 낮은 수치이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이러한 정관사의 용법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5)번의 경우에는 극장이나 영화관처럼 공공장소에 정관사를 붙이는 경우인데 앞의 문항과는 달리 정답률이 82%인 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이러한 용법에는 자신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문제유형은 다음의 세 문장이 마지막이다. 여기서는 부정관사와 정관사의 활용 실태에 대해 알 수 있다.

(60) I earn \$3 16) *an/the* hour as 17) *a/-* supermarket cashier on 18) *the/-* Saturdays.

(61) 19) *The/-* charge for 20) *an/-* excess luggage is \$10 21) *a/the* kilo.

(62) This country is officially called 22) *The/-* United Kingdom of 23) *The/-* Great Britain and 24) *The/-* Northern Ireland.

(60)의 16)번은 부정관사가 ‘-마다’로 해석되는데, 이러한 용법은 관사의 기초적인 용법으로 학생들에게 친숙한 것 같다. 그래서 72%의 정답률이 나올 수 있었다. 17)번은 가산 명사 앞에 관사를 붙이는 가장 기본적인 관사의 용법으로 정답은 a supermarket cashier이다. 그러나 정답률이 56%에 그치는 것은 많은 학생들이 아직도 모국어에 없는 관사체계를 습득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말해준다. 18)번도 역시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것으로, 전치사 on + 요일의 복수형 형태는 ‘-요일마다’라고 해석됨을

배웠다. 그러나 58%의 정답률에 그친 것은 이전에 배웠던 관사의 용법을 반복 연습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1)의 19)는 뒤에 오는 for 이하의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기에 the charge가 되고 20)의 luggage는 불가산명사이므로 무관사를 사용해야 한다. 이 문항 또한 50%의 정답률에 그친 것은 luggage가 한국 학생들에게는 모국어의 영향으로 가산명사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영어에는 가산명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가산명사인 경우가 종종 있기에 의식적으로 암기할 수 있어야 한다. 21)번 문제는 (60)의 16)번과 같은 문제로 부정관사가 ‘-마다’로 해석된다. (62)의 문제는 고유한 나라이름 앞에 관사를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the United Kingdom, Great Britain, Northern Ireland가 정답이다. the United Kingdom이 뒤의 두 개의 단어보다 더 익숙한지 두 개의 후자보다 2배 이상의 정답률을 보였다.

다음의 15개의 문장은 앞의 10개의 문장과 다른 유형의 문제이다. 앞의 유형은 두 가지 선택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는 문제였고, 이제부터 분석할 문제는 부정관사, 정관사, 무관사 중에서 문장에 알맞은 것을 쓰는 것이다. 선택의 범위가 늘어난 만큼 정답률도 첫 번째 문제유형보다 낮았는데, <표 4>에서 봤듯이 첫 번째 문제유형의 정답률은 60%인 반면에 두 번째 문제유형의 정답률은 48%로 12%나 낮은 수치이다. 문장별로 자세히 살펴보자.

(63) When I left (25) station, I had to stand in (26) queue for (27) taxi for (28) long time. * queue 줄

(64) (29) happiness of the majority depends on (30) hard work for everyone.

(65) If I had (31) time, I would like to take up (32) archery. * archery 양궁

(63)의 25번은 부정관사 36%, 정관사 34%, 무관사 26%로 정답률인 정관사 34%보다 부정관사의 선택이 2% 더 많았고 무관사의 선택도 많은 수치를 보였다. 무관사를 선택한 학생들은 station이 가산명사인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반면에 부정관사를 선택한 학생들은 station이 가산명사이지만, 문맥상으로 봤을 때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지 모르는 것이다. 26, 27번에 무관사를 선택한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아직 관사의 기본적인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둘 다 부정관사가 정답으로 손님마다 택시 한 대를 기다리기 위해 한 줄로 선 것을 표현하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28번은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관용어구로 자주 쓰이기에 학생들에게 친숙한 표현임을 실험 결과 알 수 있었다.

(64)에서 happiness와 hard work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명사로 부정관사가 올 수 없다. 그러나 각각 35%, 16%가 부정관사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관사에 대한 기초지식이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happiness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majority의 happiness임으로 정관사가 사용되었고 hard work는 특정한 사람들의 미덕이 아니라 일반 모두의 미덕임으로 관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이렇듯 같은 종류의 추상명사라고 하더라도 어떨 때 정관사가 사용될 수 있는지 세심하게 학습되도록 해야 한다.

(65)의 31번은 무려 62%가 부정관사로 답했고 20%가 정관사, 15%가 무관사로 답했다. time은 셀 수 없는 명사이므로 부정관사는 올 수 없고 정관사와 무관사로 쓰일 때는 의미차이가 있다. 윤복순(1995)의 두 개의 예시를 보자.

(66) Do you have *the* time?

(67) Do you have time?

정관사를 붙인 (66)의 의미는 단순히 시간을 묻는 것으로 시계를 나타내며, (67)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으로 여기서의 time은 추상명사이다. 이렇듯 관사의 유무에 따라 의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의사소통에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31번의 답은 무관사로 시간적인 여유를 의미한다. 32번은 archery가 스포츠의 한 종류이므로 63%가 정답인 무관사로 답을 했다.

다음의 네 개의 문장에서 정관사의 쓰임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68) We spent (33) pleasant evening having (34) drinks at (35) Robin Hood.

(69) (36) summer I spent in (37) USA was one of (38) best in my life.

(70) She was (39) first woman to cross (40) Atlantic in (41) canoe.

(71) Go down (42) High Street and turn right into (43) Mill Road.

(68)의 33번은 학생들이 거의 동일한 비율로 부정관사, 정관사, 무관사로 답을 했다. 무관사로 답을 한 경우는 evening이 보통 셀 수 없기 때문이며, 정관사를 사용한 이유는 in the evening과 같이 관용어구로 자주 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evening이 앞에 수식어구와 함께 쓰일 때는 부정관사를 사용하여 경험을 의미함을 알아야 한다. 34번에서 부정관사를 사용한 26%는 drinks의 '-s'를 유심히 보지 못했거나 질문에 성의 있게 답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또한 정관사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은 drinks가 일반적인 음료 모두를 말함으로 한정 의미의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35번에서 Robin Hood는 공공장소의 성격도 띄면서 특별한 식당을 나타냄으로 정관사를 사용하였다.

(69)의 36번의 summer는 뒤에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절이 미국에서 보냈던 특별한 여름기간으로 설명함으로 정관사를 붙였고, 다소 높은 76%의 정답률을 기록했다. 37번에서 부정관사로 답한 10%의 학생들은 관사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하거나 질문지에 무성의하게 답한 것으로 보이며, 무관사로 답한 33%의 학생들은 보통 국가 명에 관사를 붙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USA는 United States of America의 약자이며, 미국의 여러 주(state)가 모여서 형성된 나라이므로 복수형의 국가 명에는 정관사를 붙인다. 38번은 best가 형용사의 최상급이므로 정관사를 사용하는데, 80%의 학생들이 정답을 맞혔다.

(70)의 39번은 40%가 부정관사와 무관사로 답했는데, 부정관사로 답한 학생들은 woman이 가산명사라는 1차적인 관사이론에 입각한 것이고 관사를 쓰지 않은 학생들은 아직 관사체계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first는 서수이기도 하며 뒤에 오는 to부정사가 woman을 수식하기에 정관사를 사용해야 한다. 이 문제에 59%의 학생들이 정답을 맞혔는데, 의외로 적은 수치이다. 40번의 Atlantic 대양 앞에는 정관사를 사용하는데, 45%만이 정답

이었고 36%는 무관사로 답을 한 것으로 보아 고유명사기에 무조건 무관사로 여겼던 것 같다. 41번에서는 22%만이 정답인 부정관사에 표기했는데, 이 문제는 관사의 기초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로 무관사에 답을 했던 47%는 관사체계에 무지함을 드러낸다.

다음으로 (71)의 42, 43번은 모두 거리 이름을 나타내는데, 보통 거리는 정관사를 함께 사용한다. 이 문제에서 각각 약 30%의 학생들이 무관사를 정답으로 표기했는데, 그 이유는 고유명사에는 정관사를 안 붙인다는 1차적인 관사 이론의 영향인 것 같다.

이어서 (72)에서 (75)의 문장을 살펴보자.

(72) I don't like (44) milk in (45) coffee.

(73) (46) James Joyce I knew wasn't (47) novelist and wasn't (48) Irish either.

(74) We'll go for (49) walk if (50) sun comes out.

(75) You have to use at (51) least (52) pint and (53) half of milk.

(72)에서 milk와 coffee의 앞에는 모두 관사를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둘 다 물질명사이기 때문이다. 오답률을 보면 44번은 41%, 45번은 52%의 수치를 기록하였는데, 각각 약 30%의 학생들이 부정관사로 답하였다. 아직도 milk와 coffee가 셀 수 있는지 없는지의 개념이 부족하며, 이것은 관사체계

가 없는 우리말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73)의 46번은 인명 앞에 정관사가 정답으로 오는데, 바로 뒤에서 관계대명사 절이 수식하기 때문이다. 문맥상으로 봤을 때, 대화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James Joyce라는 인물이 각기 다른 사람인데, 이 문장에서 말하는 James Joyce는 'I'가 아는 사람으로 소설가도 아니고 아일랜드인도 아니라는 것이다. 64%의 학생들이 무관사로 답했는데, 아마도 인명 앞에는 기본적으로 관사를 쓰지 않는 것으로 알기 때문일 것이다. 47번에는 특정한 novelist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소설가라는 직업인을 가리키기에 부정관사가 정답인데, 30%의 학생들이 무관사라고 답한 것을 보면 관사의 기본 체계가 잡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8번은 Irish가 형용사로 쓰여야 하기에 관사를 쓰지 않는다. Irish가 불가산명사로 쓰일 때는 '아일랜드 말'이란 뜻으로 쓰이고 정관사를 붙이면 국민 전체를 가리키기에 '아일랜드 사람의'라는 뜻을 내포하는 형용사 형태를 사용해야 한다. 32%가 부정관사에 답했는데, 예를 들면, 한국인을 나타낼 때 a Korean이라고 하기 때문에 an Irish라고 하면 아일랜드 인을 의미할 것이라고 오판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 명에 관한 관사규칙은 예외가 있다는 것을 교육시켜야 될 것이다.

(74)의 49번은 'go for a walk: 산책하다'라는 의미로 관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구문이라서 66%의 학생들이 답을 맞혔고, 무관사로 표기한 22%는 단순히 walk는 셀 수 없는 명사로 여긴 것으로 생각된다. 50번은 56%가 정관사로 답을 맞혔고 33%가 무관사로 표기했는데,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명사에 정관사를 붙인다는 인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75)의 51번은 at least가 관용어구로 31%가 정답을 맞혔고 53%가 정관사에 표시했다. 그 이유는 least가 little의 최상급이므로 무조건 정관사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52번과 53번은 pint, half와 같이 양을 나타내는 명사

로 부정관사가 답이 된다. 그러나 각각 27%, 50%가 정답률인 만큼 낮은 수치를 보이는데, 양을 나타내는 명사와 관사를 어떻게 쓰는지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마지막으로 다음의 네 개의 문장을 분석해보자. 아래의 문장들은 무관사와 정관사의 활용을 살펴보는 예시이다.

(76) Dick has (54) sore throat and is taking (55) medicine.

(77) We arranged (56) accommodation on (57) outskirts of (58) city. * outskirt 변두리

(78) There is (59) very difficult crossword in '(60) Times'.

(79) Could you give me (61) information I asked for in (62) letter I sent you?

(76)에서 54번은 병명 앞에 부정관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말에 병은 셀 수 없기 때문에 49%의 학생들이 정관사나 무관사를 선택한 것 같다. 그렇지만 예상외로 51%의 학생들이 부정관사를 정답으로 답했다. 55번의 경우는 medicine이 영어에서는 불가산명사로, 우리나라말에는 가산명사로 인지되기에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정답률을 보면 알 수 있는데, 50%가 a medicine이라고 답했고 24%만이 관사 없이 medicine으로 답했다.

(77)의 56번도 55번과 마찬가지로 불가산명사이지만, 26%가 부정관사로 답한 것으로 보아 한국 학생들에게 accommodation은 한국어의 영향으로

가산명사로 인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오답률 중에 23%가 정관사로 답했는데, 정관사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특별히 정해진 숙소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숙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57번과 58번은 특정한 도시의 변두리를 의미하기에 모두 정관사를 사용해야 한다. 57번에서 18%가 부정관사를 사용한 것은 outskirts가 복수형인지를 간과했다거나 질문에 무성의하게 답한 것으로 보인다. 58번에서 무관사라고 답한 19%는 아직 관사체계가 잡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 외로는 부정관사와 정관사 중에 선택했는데, 문맥에서 살펴보아야 정답을 찾을 수 있다.

(78)의 59번은 관사의 기본적인 것을 묻는 항목인데, 53%의 학생들이 정답을 맞혔다. 예상보다 많은 41%의 학생들이 무관사로 답했는데, 관사와 명사의 자리가 수식어 very difficult로 인해 멀어지면서 관사의 사용을 간과했던 것 같다. 60번은 신문이름 앞에 정관사를 붙이므로 정관사에 표기를 한 69%가 정답을 맞혔다.

(79)의 61번과 62번은 뒤에 오는 관계대명사절에 의해 수식을 받기에 정관사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61%의 학생들이 information을 가산명사로 생각하여 부정관사로 답했는데, 한국어와는 달리 영어에서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62번에서 부정관사를 선택한 학생들은 관사에 대한 기본 체계가 잡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79)에서는 수식어구에 의해 설명되는 명사 앞에는 정관사가 사용됨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문항에 따라 정답률과 오답률을 살펴보았는데, 다음은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용법에 따라 문항의 정답률과 오답률을 분석해 보았다.

정관사를 답으로 가지는 질문지의 문항은 총 28개였고, 그 중에 1, 6, 8, 10번의 용법을 분별하는 문제는 없었다. 1번의 용법이 측정되기 어려운 이유는 문제의 길이가 한 문장이기 때문에 부정관사로 도입되는 단어와 이

후에 정관사로 받는 단어가 함께 나오려면 적어도 2개 이상의 문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3개의 용법은 교과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빈번히 사용되는 용법을 중심으로 정답률과 오답률을 생각해 보자.

<표5>에서 2번의 용법에 해당하는 문항 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2번 용법에 따른 문항 수가 가장 많았다. 정관사가 교과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분석했을 때, 2번의 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던 것처럼 질문지에서도 비교적 많은 문항을 할애했다. 12번의 경우는 교과서에서 0.3%의 빈도율로 가장 낮았지만 질문지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문항 수를 가졌다. 기타에는 나라, 도로, 신문 이름 앞에 정관사를 사용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어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외워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교과서에서 자주 대하는 2번 용법의 정답률은 나머지 용법과 비교해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교과서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빈도를 보였던 9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질문지에서는 2번 용법 다음으로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5번 용법은 교과서에서 12.3%의 빈도를 보였는데, 질문지에서는 3개의 문항수를 기록했고 정답률은 75%로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5번과 함께 높은 정답률을 보인 용법은 3, 4번 용법으로 교과서에서는 낮은 빈도를 보였지만 질문지에서의 정답률은 오히려 높았다.

<표5>에 따른 결과를 정리해보면, 교과서에서 많이 사용되는 정관사의 용법에 따른 문항의 정답률은 낮았고, 교과서에서 빈도율이 낮은 용법의 문항 정답률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자주 접하는 정관사의 용법은 익숙하기에 오히려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고, 자주 접하지 않는 용법은 낯설기에 비교적 더 많은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이다.

< 표5 정관사의 용법에 따른 정답률과 오답률 >

정관사 'the'의 용법	문항 수	정답률	오답률
1. 앞에 나온 명사 지칭	•	•	•
2. 한정적인 수식 어구로 사용	8	49	51
3. 시간 수량의 단위를 나타냄	1	76	24
4. 종족 대표	1	71	29
5. 최상급, 서수 수식	3	75	25
6. 기계, 발명품, 악기 앞에 수식	•	•	•
7. 처음 언급되는 명사 앞에 쓰는 경우	4	61	39
8. 신체 일부를 나타냄	•	•	•
9. 세상의 유일물	1	56	44
10. 관용 어구로 쓰임	•	•	•
11. 공공 장소 앞에	4	66	34
12. 기타	6	56	44
합계	28		

다음으로 <표6>은 질문지에서 부정관사의 용법에 따른 정답률과 오답률을 분석한 것이다. 총 17문항 중에 3, 5, 6, 8번 용법에 해당하는 문제는 없었고 주로 교과서에서 많이 사용되는 1번 용법을 위주로 학습자들의 부정관사 사용을 측정하였다. 1번 용법은 부정관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미이다. 교과서 분석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용법으로 꼽혔는데, 교과서에서 많이 실리는 반면에 학생들의 관사 활용에 있어서는 정답률보다 오답률이 훨씬 더 높았다. 부정관사의 관용적인 표현을 묻는 문항의 정답률은 78%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로 정답률이 높았던 용법은 4번 용법이었다. 교과서 분석에서 4, 7번의 용법은 잦은 빈도를 보이지 않았지만 더 높은 정답률을 기록했던 것은 학생들이 부정관사의 기본적인 용법은 익숙하기에 간과했을 수 있으며, 관용적인 용법은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기에 의식적인 집중을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표6 부정관사의 용법에 따른 정답률과 오답률 >

부정관사 'a'의 용법	문항 수	정답률	오답률
1. 하나 one	11	43	57
2. 어떤 a certain	1	30	70
3. 같은 the same	•	•	•
4. -마다(per)	2	65	35
5. 약간(some)	•	•	•
6. 전체종족 대표	•	•	•
7. 관용적인 표현	3	78	22
8. 기타	•	•	•
합계	17		

이상으로 질문지를 통해 학생들의 관사활용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교과서에서의 관사 사용분석과 함께 질문지를 통한 관사 활용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관사지도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3.3 관사의 효과적인 지도 방안

지금까지 우리나라 학생들이 영어에서 어려움을 겪는 관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우리나라 말에는 관사가 없기 때문에 심화된 관사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은 학교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영어수업의 대부분이 학교수업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의 효율적인 관사 지도 방안을 모색하고자 교과서와 질문지를 통해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교과서 분석을 통한 관사 사용을 보면 부정관사보다 정관사의 사용 빈도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정관사가 더 많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 쓰인 정관사의 용법은 몇 가지 용법에 치우쳐 있었다. 물론 영어의 특성상 관사의 가장 기본적인 용법이 갖은 빈도를 보일 수 있으나, 몇 가지 용법의 반복적인 사용은 학생들에게 과잉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게 한다. 질문지를 통한 학생들의 관사 활용 실태에서도 봤지만, 문맥과는 상관없이 문법시간에 배운 이론을 토대로 가산명사에는 무조건 부정관사를 사용하는 모습도 발견이 되었다. 따라서 교과서를 제작하는 출판사에서는 기본적인 용법 외 나머지 용법의 관사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사는 영어 수업 중에 교과서에서 나온 관사뿐만이 아니라 의사소통에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관사의 미묘한 차이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관사의 유무에 따라서 의미차이가 생기는 것도 있었고 문맥에 따라 coffee와 같은 물질명사 앞에도 부정관사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예외가 되는 경우를 알려줌으로써 편협한 관사의 지식에서 벗어나 유연한 사고가 가능하도록 학생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셋째, 학생들이 독해지문을 통해 관사의 용법을 학습하고 난 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영어교육론에서도 input뿐만이 아니라 output도 영어 학습에 있어서 중요함을 이미 알고 있다. 질문지에서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첫 번째 유형에서는 두 가지 선택 중에 택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유형에서는 부정관사, 정관사, 무관사 중에서 선택함으로써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그 결과 정답률도 60%에서 48%로 떨어졌다. 학생들이 이론적으로 기초적인 관사 용법에 대해 안다고

해도 실제로 적용하려고 할 때는 익숙하지 않아서 지식과 능력에 차이를 보일 때가 흔했다. 그러므로 머릿속에 있는 관사에 대한 지식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문맥상에서 정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영어교과서 분석에서 정관사의 가장 기본적인 용법뿐만이 아니라 문맥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다. 또한 질문지에서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단순히 알고 있는 관사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상에서 판단하는 부분이었다. 이러한 훈련에는 여러 문장을 포함하는 단락에서 관사의 사용을 연습하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재미있는 소설의 한 단락을 가져와서 빈칸을 주고 그 안에 들어갈 관사를 적게 하면 학생들에게 흥미와 함께 교육의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교과서를 통한 관사의 효율적인 교수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단순히 학생들에게 관사의 용법을 수용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이유를 설명하여 의식적으로 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판사에서 교과서를 출판할 때 관사학습에 대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교사들 또한 관사에 대한 교수에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서 효율적인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 4장 결론 및 제언

첫째, 교과서 분석 결과, 정관사가 부정관사보다 더 빈번히 사용되었고, 사용된 관사들은 어느 특정한 관사의 몇몇 용법에 치중했고 나머지 관사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 기본적인 몇 개의 용법 외에는 빈도수를 보이지 않는 것도 있었다. 물론 영어의 특성상 교과서에서 관사의 기본적인 용법에 치우칠 수 있으나, 나머지 소외되는 용법에 관해서 교사들은 학생들이 의식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질문지에서 용법에 따른 문항의 정답률과 오답률을 분석했는데, 의외로 기본적인 용법에 관련된 문항의 정답률은 훨씬 낮았다. 교과서에서 이들의 빈도는 가장 높았으나, 학생들의 활용하는 능력은 낮은 것이었다. 몇몇 학생들은 기본적인 관사에 대한 이해도 부족할뿐더러 문맥상으로 판단하는 능력도 떨어졌고 아주 기본이 되는 용법만을 가지고 과잉 일반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므로 교과서에 자주 수록되었다고 학생들이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

셋째,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교과서를 통한 관사의 효율적인 교수 방안을 살펴보았다. 학생들의 발전적인 관사 활용을 위해서는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와 교육기관 모두가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관사는 한국어에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영어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사 사용의 미묘한 오류는 의미전달에 방해와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어과 교육과정의 목표가 의사소통에 중점을 둔다면 관사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쉽게도 이 논문은 학생들의 관사 활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현재의 문제와 앞으로의 방향만을 제시할 뿐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관사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교수방법과 그에 대한 장기적인 실험 및 결과를 만들어가면서 좀 더 발전적인 영어 수업으로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 고 문 헌

- 강행구. 2001. *영어관사의 체계와 습득의 실제*, 서울: 경진출판사.
- 권명애. 2002. 교과서에 나타난 영어관사 이해 및 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김용성. 2001. *영문법*, 서울: 우용출판사.
- 박경자, 이희경. 2002. *영어습득의 이해*, 서울: 우용출판사.
- 박근우. 1991. *영어교사를 위한 영문법*, 서울: 형설출판사.
- 오자키 데쓰오. 2007. *전치사·관사 더 이상 틀리지 말자*, 서울: 두앤비컨텐츠.
- 외국어과 교육과정 I*. 2009.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윤복순. 1995. 영어 관사의 효과적인 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 이병민외 4인. 2001. *교과 영어회화*, 서울: 천재교육.
- 이신행. 1985. 영어 관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이찬승, 황우연, 안세정, 구은영, 김진홍, 이종은. 2008. *High School English*, 서울: 능률교육.
- 정경인. 2005. 영어학습자들의 관사사용에 대한 오류분석,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정두영. 1990. 영어 정관사의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한학성. 1996. *영어관사의 용법*, 서울: 태학사.
- Allan. K. 1986. *Linguistic Meaning Vol. 2*, New York: Routledge and

- Kegan. Paul
- Celce-Murcia, Larsen-Freeman. D. 1983. *The Grammar Book*, Rowley: Newbury House.
- Christophersen. Paul. 1939. *The Articles: A Study of Their Theory and Use in English*, Copenhagen: Einar Munksgaard.
- Geoffrey Leech, Jan Svartvik. 2002. *A Communicative Grammar of English*, Harlow: Longman.
- Hewson. J. 1978. *Article and Noun in English*, The Hague: Mouton.
- Jespersen. O. 1965.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Copenhagen: Munksgaard.
- Michael Vince, Peter Sunderland. 2003. *Advanced Language Practice with Key*, Oxford: Macmillan.
- Whitman. R. L. 1974. *Teaching the article in English*, TESOL Quarterly.

설 문 지

() 고등학교 () 학년 () 반 이름 ()

※ 맞는 답에 밑줄 그으세요. ‘-’는 무관사를 뜻합니다.

It's 1) *a/-* long time since I met 2) *a/-* lovely person like you!

At 3) *the/-* present moment, 4) *the/-* man seems to have 5) *the/an* uncertain future.

6) *The/-* French enjoy spending holidays in 7) *the/-* countryside.

Please do not turn on 8) *a/the* water-heater in 9) *a/the* bathroom.

Sue bought 10) *a/the* Picasso I was telling you about 11) *the/-* last week.

12) *The/-* Poorest people in 13) *the/-* country live in this city.

Have you seen 14) *a/the* new 'Hamlet' at 15) *the/-* National Theater?

I earn \$3 16) *an/the* hour as 17) *a/-* supermarket cashier on 18) *the/-* Saturdays.

19) *The/-* Charge for 20) *an/-* excess luggage is \$10 21) *a/the* kilo.

This country is officially called 22) *The/-* United Kingdom of 23)

The/- Great Britain and 24) *The/-* Northern Ireland.

※ 괄호 안에 알맞은 관사를 넣으세요. 관사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When I left (25) station, I had to stand in (26) queue for (27) taxi for (28) long time. * queue 줄

(29) happiness of the majority depends on (30) hard work for everyone.

If I had (31) time, I would like to take up (32) archery.

* archery 양궁

We spent (33) pleasant evening having (34) drinks at (35) Robin Hood.

(36) summer I spent in (37) USA was one of (38) best in my life.

She was (39) first woman to cross (40) Atlantic in (41) canoe.

Go down (42) High Street and turn right into (43) Mill Road.

I don't like (44) milk in (45) coffee.

(46) James Joyce I knew wasn't (47) novelist and wasn't (48) Irish either.

We'll go for (49) walk if (50) sun comes out.

You have to use at (51) least (52) pint and (53) half of milk.

Dick has (54) sore throat and is taking (55) medicine.

We arranged (56) accommodation on (57) outskirts of (58) city. * outskirt 변두리

There is (59) very difficult crossword in '(60) Times'.

Could you give me (61) information I asked for in (62) letter I sent you?

